

『청량(淸涼)』 소재 이중어 소설 연구

신미삼*

- I. 서론 : 『청량(淸涼)』에 대하여
- II. 식민지 조선인 대변하기와 식민지 조선사회 고발하기
 - 1. 내부 식민지인으로서의 '조선 여성'의 삶
 - 2. 가난을 통해 본 '식민지 근대'의 이중성
- III. 식민지 근대인의 삶과 풍속
 - 1. 근대 문화의 구현 공간으로서의 카페
 - 2. 자유연애로 배태된 연애의 풍경, 연애의 코드
- IV. 결론

【국문초록】

『청량(淸涼)』은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경성제국대학 예과 학우회 문예부 부회지이다. 이 교우회지에 조선인 학생들과 일본인 학생들은 일본어로 작품을 창작하여 발표하였다. 이중 조선인 학생들이 쓴 이중어 소설은 총 17편이다. 여기서 조선인 경성제대생들은 조선의 내부 식민지인인 하위계급을 대변하기도 하고, 그들을 통해 비참한 조선을 그려내기도 하였다. 또 당시 일본을 통해 들어온 '근대'를 마음껏 주유하던 근대인의 풍속도 드러내었고 식민지라는 조건으로 인해 왜곡되고 변주되어 나타난 식민지 근대의 이중성도 고발하였다. 이로써 경성제국대학 조선인 학생들이 쓴 이중어 소설 속에는 식민 본국의 언어로 조선의 현실이 재현되어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경성제대 조선인 학생들 중에는 1920년대 말에 붙어 닦친 경제난으로 인해 생존을 위한 입신의 길을 걷는 부류도 있었다.

주제어 : 경성제국대학, 조선인 학생, 청량, 이충우 소설, 하위계급, 내부 식민지인, 근대, 식민지 근대

I. 서론 : 『청량(淸涼)』에 대하여

본고의 목적은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경성제국대학 예과 학우회 문예부 부회지 『청량(淸涼)』을 중심으로 여기에 수록된 조선인 학생의 ‘이충우 소설’¹⁾을 검토하는 것이다. 『청량』은 전체 학생회가 발행한 일본말 잡지로서, 1925년 5월 18일에 창간되어 1941년 《詩歌號》를 최후로 30호까지 간행된 잡지(동인지)였다.²⁾ 이충우는 교우회지 『청량』에 일본 학생들이 주로 글을 발표하고 조선 학생들은 『문우(文友)』에 투고했다고³⁾ 하지만 『청량』의 필진을 살펴보면 유진오, 이효석, 최재서, 김태준, 조용만 등 나중에 문학자로서 활약을 펼치게 되는 인물들을 위시하여 많은 조선인 학생들의 작품이 있다. 『문우』지는 1925년에 창간된 후 제5호(1927. 11)까지 나온 계간지로 경성제대 예과 조선인 학생들의 조직이었던 문우회(文友會)의 기관지였다. 문우회는 ‘글로써 벗을 모은다’는 표방 아래 근본정신은 ‘배일(排日)’이었다.⁴⁾ 유진오의 회상에 의하면 경성제대

1) 본고에서 말하는 ‘이충우 소설’이란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이 일본어로 창작한 소설을 가리킨다.

2) 호테이 토시히로(布袋敏博), 「일제말기 일본어 소설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6, 37면.

3) 이충우, 『경성제국대학』, 다락원, 1980, 92면.

4) 『문우』와 ‘문우회’에 대한 언급은 이충우, 위의 책, 131면과 이상옥, 『이효

내 조선인 학생들은 이 두 교지에 번갈아가며 발표를 하였던 것이다.⁵⁾ 그러므로 일본인 학생들과 조선인 학생들이 일본어로 쓴 『청량』과 조선인 학생끼리 조선어로 쓴 『문우』의 작품들을 비교해 본다면 이 속에서 어떠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나 오늘날 『문우』지는 제5호 외에 구해볼 수가 없다.⁶⁾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청량』에 발표된 조선인 학생들의 이중어 소설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당시 식민지 조선 사회의 최고 엘리트 집단이었던 경성제대생들의 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량』의 총 발행 사항 및 본고에서 살펴볼 이중어 소설은 다음과 같다.⁷⁾

석의 삶과 문학』(증보판), 집문당, 2004, 35면, 호테이 토시히로, 「일제말기 일본어 소설 연구」, 40면을 참고하였다. 한편 본고에서 말하는 『문우』지는 연희전문의 교지였던 『문우』와는 다르다.(오문석, 「식민지 시대 교지(校誌) 연구 (1)」, 『상허학보』 제8집, 상허학회, 2002.2, 19~22면 참고)

- 5) 유진우, 「작품해설」, 『한국단편문학전집 2 유진우단편집』, 정음사, 1978, 432면.
- 6) 이상옥은 『문우』지에 대해 오늘날 창간호부터 제3호까지는 구해 볼 수 없고 제4호(1927.2)와 제5호(1927.11)는 남아 있으나 제5호는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채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필자는 연세대학교 신촌 중앙도서관(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에서 제5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기할 것은 이상옥은 『문우』지 제5호에 이효석의 시 ‘님이여 어디로?’가 발표되었다고 했으나 확인 결과 ‘님이여 들로!’라는 시였다.(이상옥, 『이효석의 삶과 문학』, 35면과 이충우, 『경성제국대학』, 133면 참고)
- 7) 본표는 호테이 토시히로의 「일제말기 일본어 소설 연구」, 38면을 기초로 작성하였는데, 호테이의 논문에서 언급된 『청량』의 발행 사항과 본표에서 언급한 『청량』의 발행 사항은 조금 다르다. 이를 지적하면 아래와 같은데 편의상 본표는 【표 1】로 호테이의 논문에서 언급된 『청량』의 발행 사항은 【표 2】로 지칭한다.
 - ① 【표 1】과 【표 2】의 『청량』 제4호, 제18호의 발행일은 다른데 확인 결과 【표 1】이 맞다.
 - ② 【표 2】에서 호테이는 『청량』 제8호, 제9호, 제16호의 발행 사항을 언급하고 있으나 필자는 실물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런데 호테이가 오무라 마쓰오(大村益夫)와 함께 펴낸 『近代朝鮮文學日本語作品集(1901~1938)』 創作篇 1~5(東京: 綠蔭書房, 2004) 중 2권과 3권에 『청량』 제8

발행사항	번호	저자명	소설명
제1호 / 1925. 5. 18	1	이재학(李在鶴)	눈물(淚)
제2호 / 1925. 12. 18			
제3호 / 1926. 3. 16	2	"	거리의 시인 (街路の詩人)
제4호 / 1927. 1. 1			
제5호 / 1928. 4. 10	3	김중무(金鍾武)	구원받은 소녀 (救はれた小姐)
	4	조용만(趙容萬)	신경질시대 (神經質時代)
제6호 / 1928. 12. 15	5	"	여자의 일생 (UNE VIE)
	6	김비토(金飛兎)	백의의 마돈나 (白衣のマドンナ)
제7호 / 1929. 12. 15			
제8호 / 1930. 3. 13(未見)	7	한상호(韓商鎬)	봄을 기다린다 (春を待つ)
제9호 / 1930. 7. 4(未見)	8	"	여동생의 자살 (妹の自殺)
	9	이호근(李皓根)	불안이 없어진다 (不安なくなる)
	10	고정옥(高晶玉)	시크(シーク)
제10호 / 1930. 12(未見)			
제12호 / 1931. 9. 1			
제13호 / 1932. 3(未見)			
제14호 / 1932. 9. 1	11	김영년(金永年)	박서방(朴書房[パクソバン])
	12	"	밤(夜)

호, 제9호, 제16호에 실렸던 경성제대 조선인 학생의 이중어 소설 5편이 실려 있어 텍스트를 구할 수 있었다.

- ③ 【표 1】의 『청량』 제12호, 제14호, 제17호, 제23호, 제28호는 필자가 새롭게 발굴한 것이다. 한편 『청량』 제11호, 제19호, 제20호, 제24호, 제25호, 제26호, 제27호, 제29호는 실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

제15호/ 1933. 3. 25	13	구자균(具茲均)	헤어지다(別れ行く)
	14	홍영표(洪永杓)	희생 (イケニへ(犠牲))
제16호/ 1933. 11. 8 (未見)	15	노성석(盧聖錫)	물거품(うたかた)
제17호/ 1934. 3. 9	16	”	명문출신 (『名門の出』)
제18호/ 1934. 7. 10	17	오영진(吳泳鎭)	할머니(婆さん)
제21호/ 1936. 7. 31			
제22호/ 1936. 12. 19			
제23호/ 1937. 9. 8			
제28호/ 서지훼손			
제30호/ 1941. 3. 30			

II. 식민지 조선인 대변하기와 식민지 조선사회 고발하기

1. 내부 식민지인으로서의 ‘조선 여성’의 삶

『청량』에 수록된 경성제대 조선인 학생들의 이중어 소설 속에서 유독 산견되는 것은 식민지 조선의 여성이다. 식민지 조선의 여성이란 구여성에서부터 신여성에 이르기까지, 기생에서부터 근대가 가져다준 문화적 충격으로 파생된 ‘여급’, ‘마담’, ‘까페걸’, ‘데파트 걸’ 등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고정된 주체로 아우를 수 없고 그 내부에 굉장히 다양한 차이를 지니는 중층적인 존재들이었다. 하지만 소수의 ‘신여성’을 제외한 나머지 여성들은 조선의 근대화 속에서 근대를 전혀 향유해보지 못하는 소외계층으로 살아갔고, 또는 그 반대로 왜곡되고 비틀린 식민지 근대를 오롯이 견뎌야 했던 사회적 약자(하층민)로 살아갔다. 게다가 우리 안의 식민주의 즉 내부 식민지 속에서 또 한 번 남성으로부터 차별과 착취를 당하

고, 가부장제라는 질곡을 헤매어야 하는 존재들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대다수의 하층민 여성들이 스스로 말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인데 바로 이 지점에서 스스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던 또는 못했던 조선인 여성들의 삶을 드러내고 있는 경성제대 조선인 학생의 이 중어 소설들을 ‘대변하기’의 기능으로서 살펴볼 수 있다.⁸⁾

경성제대생들이 현실의 재현으로서 여성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던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새 시대를 기약하는 희망이 나타나고 구석구석에서 변화를 제창하는 활기찬 목소리가 들리며, ‘연애와 문화’라는 구호에 취한 젊은이들의 모습이 도드라져 보인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그 중에서도 ‘연애’는 1920년대 초반을 읽어볼 수 있는 코드로 세계 개조의 목소리가 높던 시절 개조론의 대중적 변종으로 기능하였음을 권보드래는 지적한 바 있다. 즉 학생들은 당시 영어 ‘love’의 번역어였던 이 시기의 ‘연애’를 영어를 배우듯이 학습하였고 학생층은 단연 자유연애를 이끌어 가는 주체였던 것이다.⁹⁾

경성제대 조선인 학생들 역시 ‘카페’를 통해서 자유연애를 ‘학습’했다.¹⁰⁾ 카페를 드나들며 자유연애 풍조를 학습하던 경성제대

8) 윤택림은 그들이 스스로 말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스스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민중의 다양한 목소리를 재현시킬 수 있는 방법론과 이론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윤택림, 『인류학자의 과거 여행』, 역사비평사, 2003, 100면.) 오늘날에는 “하위주체들의 역사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기억’이 각광받기도 하는데(윤해동·천정환·허수·황병주·이용기·윤대석 엮, 『근대를 다시 읽는다』 1, 역사비평사, 2006, 24면.) 본장에서는 기억물조차 남기지 않았던 여성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재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청량』에 접근하였다.

9) 김동식, 「‘조선의 얼굴’에 이르는 길 - 현진건의 중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현진건, 『운수 좋은 날』, 문학과 지성사, 2008, 366면 참고.

10) 이재학(경성제대 예과 제1회 입학)의 회고에 의하면 경성제대 예과가 개교했던 무렵(1924년) 서울 “本町(지금의 충무로)”에는 “바”가 있었으나 값이 비싸 학생 형편으로는 갈 수가 없었고, 기생이 있는 요정에도 가지 못해 가장 대중적이고 술값이 싼 카페만 다녔다고 한다. 게다가 예과생

생 중에서는 조강지처와 “이혼은 못하고 2중생활을 하는”¹¹⁾ 학생도 있었고, 유진오처럼 “독일의 피테가 되어보겠다고”¹²⁾ 다짐한 학생도 있었다. 하지만 조선인 경성제대생들은 그들의 소설 속에 단순히 연애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연애를 통해서 “한 사회 또는 시대의 중층적인 표정을 드러”¹³⁾내었기에 여성문제를 다양한 각도로 조명할 수 있었다.

카페 여급의 비참한 삶을 그린 작품으로는 조용만(1909~1995)의 「여자의 일생(UNE VIE)」¹⁴⁾(『청량』 제6호, 1928.12.15.)과 홍영표의 「희생(イケニ〜(犠牲))」(『청량』 제15호, 1933.3.25.)이 있다. 두 작품 모두 ‘아끼꼬(秋子)’(「여자의 일생」)와 ‘하루꼬(春子) 짱’(「희생」)이라는 두 여인을 내세워 이들이 어떻게 해서 경성의 밑바닥 생활을 전전하는 가련한 일생을 살게 되었는가를 그려내고 있다. 우선 강원도 강릉에서 가난한 소작인의 딸로 태어나 여급 생활을 전전하다가 결국 21살의 나이로 가련한 생애를 마감한 아끼꼬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아버지와 여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 경성의 어느 관리 집의 몸종 하녀로 들어갔다. 당시 그녀는 열여섯의 나이였지만 ‘장녀’였던 탓에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어야 했던 것이

은 제1회 제대학생이다 보니 존귀한 존재가 되어 여급들에게서 인기가 대단하였고 환영을 받았다고 한다.(이웅선 편, 『동은 이재학 회고록』, 이화문화사, 2004. 19면·187면과 이충우, 『경성제국대학』, 79면 참고.)

- 11) 이충우, 위의 책, 173면.
- 12) 이웅선 편, 앞의 책, 21면. 연애는 문화예술문학의 유행을 자극한 주요 원천이었던 것이다.(권보드래, 「머리말」,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2003, 8면.)
- 13) 김동식, 「조선의 얼굴」에 이르는 길-현진건의 중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현진건, 『운수 좋은 날』, 368면 참고.
- 14) 「여자의 일생」은 1883년에 모파상이 발표한 『여자의 일생(Une vie)』의 제목에서 따온 것인데, 모파상의 작품 제목만 취했을 뿐 내용은 무관함을 조용만 스스로 소설 말미에서 밝히고 있다.(조용만, 「여자의 일생」, 『청량』 제6호, 경성제국대학 예과학우회, 1928.12.15, 126면.)

다. 하지만 그녀는 “수입이 많은 일과 화려한 생활”이라는 미끼에 걸려 여급으로 나오게 되고 “고기에 굶주린 남자들”에 의해 농락 당하였으며 심지어 중병에 걸린 아버지의 치료비를 위해 몸까지 팔게 된다. 결국 어느 서양인에 의해 창녀 신세를 벗어나 “카페·킹의 여급”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지만 결국에는 자살로써 생을 마감한 것이다. 그런데 화자 ‘나’는 이러한 극히 불행하고 극절 많은 생애를 살다간 아끼꼬를 관찰하고 대변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애가 아무리 불운하고 암담한 것일지라도, 그 자신으로서는, 분명 하나의 새로운 존재”이고, 그녀들의 삶 또한 이 세상의 “무한한 공간(無限空)과 무한한 시간(無限時)” 사이에, “오로지 한 번밖에 경험할 수 없는 희유(稀有)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루꼬 짱(=춘 숙(春淑) 양) 역시 장녀로 어머니 사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2년 계약의 식모로 나오게 된다. 하지만 식모로 나오며 받은 “이백 원”의 돈은 방탕한 아버지가 다 써 버리고, 그녀는 고용살이 집을 나오기 위해 남은 빚 백 원 정도를 “박상(朴さん)”으로부터 빌려 갚고 난 뒤, 다시 박상의 돈을 갚기 위해 여급 생활에 뛰어들다. 하지만 “짐승”같은 박상에 의해 그녀는 “임신”까지 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직장이었던 카페 “브라질”에서 조차 쫓겨난다. 하루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는 자명하다. 홍영표는 이렇듯 가련하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야했던 조선의 수많은 여급들의 삶을 하루꼬를 대표하여 보여주고 있다. 「희생(イケニ〜(犠牲))」이라는 소설의 제목은 가부장제 논리에 의해 여성, 특히 장녀가 가정을 위해 ‘산 제물’로서 ‘희생’되는 상황과, “대머리 매”같은 비열한 남성(박상)들에 의해 또 한 번 희생당하는 여성들(특히 여급들)의 처지를 압축하여 드러내는 것이다.

한편 오영진(1916~1974)의 「할머니(婆さん)」(『청량』 제18호, 1934. 7.10.(집필: 1934.5.17.))는 전근대적 여성이 어떻게 전통 사회에 환멸을 느끼게 되어 ‘자신’을 ‘자각’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외동딸이던 할머니는 16살의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큰 유산을 상속 받지만 그녀에게는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었다. 다음 해 그녀는 어느 “양반”과 결혼했지만 가난한 양반의 도련님은 재산을 화류계에 뿌려대다가 “서양 이름의 이상한 병으로” 죽어버리게 되고, 그녀는 자식도 빼앗긴 채 남편의 집으로부터 쫓겨난다. 이후 그녀의 두 번째 남편은 전남편과의 사이에 아이가 있는 것을 구실삼아, 돈을 가지고 또 어딘가로 도망쳐 버리는데 이러한 그녀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렇다. 인간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 추악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 나는 바보였다. 무기를 빼앗기고,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당하고서야 비로소 알다니! 지금에 와서 땅을 치고 운다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일까! 그러나, 나는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나 자신을 위해서—

(오영진, 『할머니』, 40면.)

이리하여 할머니는 “생지옥 같은 하녀 고용살이”로 들어갔고 “자기 자신을 위해 일어섰다.” 그러는 동안 “사회는 20년 사이에 한 사람의 편협한 개인주의자를 만들어” 버렸지만, 작품을 통해 작가는 가부장제도의 폭력에 의해 ‘구여성’이 어떻게 희생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오영진은 조선의 ‘여급’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고통 받고 있었던 내부 식민지인인 ‘구여성’의 삶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2. 가난을 통해 본 ‘식민지 근대’의 이중성

『청량』 제14호(1932.9.1.)에 나란히 발표된 김영년¹⁵⁾의 두 작품은

15) 김영년은 일제 친일반민족행위자 708명 중 ‘조선총독부 사무관’의 하나로

조선의 소작인을 통해 가난의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의 모색을 살펴보고 있는 작품이다. 우선 「박서방(朴書房[パクソバン])」(집필: 1932.6.27.밤)은 조선의 농민들이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자각하고 비판적 인식을 가져 저항을 위한 자발적 연대 의식으로 나아간다는 내용이다. 제목의 ‘박서방’은 “지주 이 주사에 가장 「충실」한 소작인”이자 “아부꾼”으로 마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 역시 “배고픔에 대한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밥을 얻으러 돌아다니다가 술집에서 그가 평소에 충성했던 ‘최 나리’를 발견하여 밥을 구걸하는데, 최 나리는 그에게 도리어 “미친놈!”이라 꾸짖으며 가차 없는 발길질을 해댔 뿐이었다.

그 때, <…> 모두가 끌어당겨지듯 일제히 섰다.

<…>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 우리들도, 인간이다」

「뭐야? 네 놈은 또」 <…>

「우리들, 주인에게, 쌀을 모두 쥐서, 모두, 갖은 고생을 겪었어! 주인님은 그렇게 술을 마시고…밥을 먹여 달라고, 말한다고, 주인님은, 죽일 셈인가」 <…>

최 나리는 완전히 놀래서 모두를 둘러보았다. 모두들의 움푹한 눈 속에서 타오르고 있는 불꽃이, 배고픈 이리처럼 빛나고 있었다. <…> —이러한 일이 있었던가? 「기르는 개처럼」 잘 순종했던 「놈들」이, 이렇게 반항하는 일이 가능한가? 태어날 때에, 화내는 것을 잊어버린 듯한 이 소작인들이, 기르는 주인의 손을 물어뜯는 일을 알았던가? —이것은 무서운 발견이었다.

(김영년, 「박서방」, 31~32면.)

나리가 도망가고 이성을 찾은 농민들은 “나리에게 반항했다!”는 일로 두려움도 느끼지만 “「하나님」같이 우러러 보던 나리를 혼내 준 일”로 “무언가 기쁨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매년 이

이름이 올라 있다.

썸이 되면 이렇게 굶주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열가마니 거둬들인 쌀은 소작료와 가불을 합치면 절반이상이나 그 자리에서 없어져 버”리고 자신의 자식들까지 일하는 현실, 그렇지만 “언제나 코끝에 「죽음」이 따르”는 모순 속에서 그들은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된다. 또 “비단옷”, “검은 외투”, “구두”로 치장된 ‘최 나리’와 ‘김 상’이 자신들은 구경도 못하는 “술”을 마시며 “읍내의 금융”에 대한 이야기와 “천 원인가 이 천 원인가 하는 목소리”를 내자 그들은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자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로써 그들은 무의식중에 “혁명”을 일으키게 되었고 앞서 “군의 제사공장” “파업” 소식을 들려주며 “단결”을 호소하던 “27.8세 정도의” 젊은이의 집으로 향하게 된다. 농민들이 단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찾아가는 그 젊은이는 앞으로 이들을 더욱 계급적으로 각성시킬 인물임에 분명하다.¹⁶⁾

「밤(夜)」은 ‘이만석(李萬石)’이라는 농민으로부터 “하이카라, 똥카라 놔!”이라는 “욕”을 듣는 지식인 화자 ‘나’가 그의 눈에 비친 “진상”을 고발하는 작품이다. ‘보고문학입선작’이라는 타이틀과 함

16) 사회의 모순 구조를 자각한 농민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자발적 연대 의식 및 저항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김종무의 「구원받은 소녀(救はれた小姐)」(『청량』 제5호, 1928.4.10.(집필: 1928.1.15.))에 등장하는 농민들이 보여주지 못한 의식의 쾌거이다. 김종무의 「구원받은 소녀」는 조선인 소작인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으로, 가난으로 인해 한 순간 도덕성을 상실한 여성이 타작미를 훔치다 지주에게 들리게 되자 자살을 시도하는데 복중태아로 인해 ‘구원’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 작품 역시 가난한 소작인 여성을 통해 식민지 조선사회의 비참함을 드러내고 있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농민들은 “체념함”을 가지고 있을 뿐 사회구조의 모순성을 의식하지 못한다. 결국 이 소설의 무게중심은 식민지 조선의 가난한 농촌 사회를 통한 식민지 구조의 모순성 보다는 강인한 ‘모성애’를 통한 ‘생명 존중 사상’에 있다.

『청량』 제6호에 실린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백의의 마돈나(白衣のマドンナ)」, 1928.12.15.) 역시 ‘생명 존중 사상’이 그대로 이어진다.(그러나 「백의의 마돈나」는 ‘생명존중사상’ 하나만으로 수렴되지는 않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층위에서 분석될 수 있는 작품이다.)

께 “이것은 모두 사실이다.”라는 부기가 있는 이 작품은 합리적이고 근대적인 생산방식과 생활의 변화가 농촌사회에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농민들은 가난한가를 정면으로 맞받아 증언하고 있는 문제작이다. “나”의 말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공제조합”에서는 “신청자에 대해 한 집에 최고 20원을 빌려 준다.” 그것은 그 돈으로 부업을 해서 생계에 여유를 만들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돈을 연 1할의 이자와 함께” 1년 안에 갚을 수 있는 자에 한한다. 이로써 가난한 이들은 이 구제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들이 “그 20원을 부업 대신에 그 날의 식량으로 사용”해야 할 만큼 가난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 돈은 그 해로 갚아야 하기에 수확기에 농민들의 손에는 “나락과 짚”만이 남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이자는 분납 가능하다는 “제2의 은전(恩典)”이 주어지지만 “매월 16전 남짓의” 이자는 그들의 숨통을 조여 왔다. 한편 ‘공제조합’에서는 “저금” 또한 “생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강요하여 “매월 한 가구 20전의 저금을 강제”하지만 그들 개인이 ‘이주사’ 또는 ‘공제조합’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전 조합원의 “저금”으로 그것을 갚기 때문에 저금이 그들을 구원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래서 그들은 밤에 자리 엮기(부업, 인용자)가 애초에 불가능하다.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침투로 인해 자급적인 경제 질서가 깨어진 농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해서 돈을 손에 넣어야 했다. 이로써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일은 일상적인 생존수단으로 농촌사회에 자리”¹⁷⁾ 잡게 되고 농부들은 “이웃 마을의 금종묘장(金種苗場)에 고용되어” 간다. 어른 남

17) 이경란, 「1930년대 농민소설을 통해 본 ‘식민지 근대화’와 농민생활」,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일제의 식민지배와 일상생활』, 해안, 2004, 394~395면 참고.

자는 “하루 20전 내지 15전, 여자는 15전, 아이는 10전”이라는 임금 속에서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가 지날 때까지 약 12시간을, 햇볕이 세계 내리쬐는 태양 아래에서 풀을 뽑아야 했다.

이로써 김영년의 「밤」은 식민지시기에 일어난 제도적 근대화가 누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명히 한다. 식민지 조선은 분명 이전의 전통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여러 가지 근대적 현상들을 경험하고 있었지만¹⁸⁾ 이러한 근대성의 도입이 식민지시기를 살았던 당시의 조선인, 특히 농민들에게는 또 다른 이름의 궁핍일 뿐이었다. 심지어 “벼농사를 포기한” 농부들에게는 기존의 “생활고를, 피로를 잊어 버리”기 위해 특히 “「왜?」라는 의문을” 잊어버리기 위해 행해지던 ‘풍물놀이’조차 금지된다. 이제 농민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부업을 할 수도, 놀이를 즐길 수도 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이러한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영원히 고향을 등지고 만주로 이민을 가거나 자살하는 것뿐이었다.

구자균(1912~1964)의 「헤어지다(別れ行く)」(『청량』 제15호, 1933. 3.25.(집필:1933.1.15.))¹⁹⁾는 고향에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농민들이 “평생 몰랐던 유랑의 길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한다. 또 「헤어지다」는 ‘저수지’ 공사를 둘러싼 사건을 그리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구자균 역시 “근대적 합리성이 모든 조선인들에게 동일하게 긍정적 효과로 작용했던 것은 아²⁰⁾”님을 증언한다. 저수지를 포함한 근대적 수리시설은 높은 생산성의 상징이었기에 안정된 물 공급을 통해 가뭄과 홍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²¹⁾ 환상을 농민들

18) 김동노, 「식민지시기 일상생활의 근대성과 식민지성」, 위의 책, 25~27면 참고.

19) 이 작품은 미완의 작품으로 작품 맨 뒷장 ‘부기(附記)’에 의하면 이것은 작자가 계획하고 있는 중편 「농촌은 이렇게 해서」의 최초의 장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작품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20) 김동노, 앞의 글, 31면.

21) 이경란, 앞의 글, 413면 참고.

에게 심어주었지만, 이러한 환상의 이면에는 농민들의 땅을 차지할 지주의 계획이 있었을 뿐 결코 농민의 풍족한 삶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²²⁾

한편 식민지 조선의 ‘가난’의 문제는 조선 사회의 하위계층인 소작농들에게만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었다. 이는 도시와 농촌을 망라한 전 조선의 사회 문제로 왜곡되고 비틀린 ‘식민지 근대’가 가져다준 모순의 결과였다. 게다가 1929년 10월, 뉴욕 주식 시장의 대폭락을 시발로 세계적인 경제공황이 벌어지자 조선의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갔다. 이 영향으로 인해 공장이 모두 문을 닫자 실업자는 거리에 넘쳐흘렀고 농촌은 극도로 피폐해졌으며 대학생은 학교를 졸업해도 취직할 데가 없었다. 이러한 ‘취업난’은 조선의 중산계층의 삶까지 불안하게 만들어 샐러리맨들은 항상 “해고”의 위협을 코끝에 달고 살아야만 했다.

이호근의 「불안이 없어진다(不安なくなる)」(『청량』 제9호, 1930. 7.4.(집필:1930.5.28.))는 도시생활의 중독자이자 가난한 ‘샐러리맨’ ‘모보’를 통해 ‘식민지 근대’의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월부’로 “새롭게 구입한 흰 세루 즈봉을 입고” “구뎃방”에서 주문한 “흰 구두”를 신으며 “비둘기 같은 경쾌함으로” 걸어 다녀야 하는 존재들이었지만 이들의 발걸음은 경쾌하면서도 불안하다.

나는 K에게 말했다.

「뭐야! 나는 양식을 먹고 흰 즈봉을 빼입었지만, 뭔지 모르게 불안

22) 한편 구자균은 마을의 지식인인 ‘성철(星哲)’이 “면사무소의 공금을 횡령”하여 “마을 사람의 저수지건의 부담금”을 갚아 줌으로써 임창봉으로부터 농민들의 땅을 되찾아 주는 설정을 취하고 있다. 이는 김영년의 「밤」에서 단순히 관찰만 하고 대변만 하던 무기력한 지식인상으로부터의 발전이다. 하지만 작가가 주인공의 의식과 투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직화·사회화시키지 못하고 단순히 ‘공금 횡령’으로 해결한 것은 이 작품의 한계로 여겨진다.

하군. 처음부터 이 구두(흰 즙봉과 어울리지 않는 검은 구두, 인용자) 신분대로 몸차림을 갖춰야 했었다! 월급일에는 그 녀석들이 모여 오겠지!? 구둑방에, 무슨 무슨 집에, 모두 지불하면 3분의 1도 손에 들어 오지 않잖아. 게다가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목숨 아닌가?

「뭐 샐러리맨이 다 그렇지 뭐.」 <…>

「너는 불안하지도 않는 거야?」 <…>

「누가 불안하지 않다고 말하던가. 이 불안을 즐기는 이상에는, 불행하지도 못하는 샐러리맨에 운명 지어졌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지 않은가 하는 이치지…」

(이호근, 「불안이 없어진다」, 23~24면,

大村益夫·布袋敏博 編, 『近代朝鮮文學日本語作品集

(1901~1938)』 創作篇 2, 439~440면).

식민지 자본주의의 충실한 소비자가 된 그들이기에 그들의 “65원 정도의 샐러리”(「불안이 없어진다」)는 월급날 ‘3분의 1도’ 손에 남지 않게 되지만, 후불제라는 제도적 장치로 인해 그들은 항상 과잉 소비를 하게 된다. 이로써 그들은 식민지 근대의 위기를 감지하게 되나 식민지인인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오직 “이 불안을 즐기는” 외에는 방법이 없기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식민지 근대의 모순을 한상호는 「여동생의 자살(妹の自殺)」(『청량』 제9호, 1930.7.4.)에서 편지의 형식으로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자살하기 직전 오빠에게 띄운 유서와도 같은 여동생의 편지와 일기를 통해 작가는 왜 여동생이 자살로써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여준다. “여러 가지의 향락과, 눈이 팽팽 돌 것 같은 가지가지의 변화로 현대인을 도취”시키는 “화려한 도회”를 여동생은 “동경”했지만 그녀는 그 도시로부터 보기 좋게 배반당했다. 경이의 눈을 크게 뜨게 하는 “마천루” 가운데에도 심원이나 신비 등의 숭고한 어떤 것이 있을 것으로 상상하였지만 가난한 피식민지인인 그녀에게 식민지 근대란 “너무나도 큰 위선과 사도(邪道)”만을 보여줄 뿐이었다. “아! 도망쳐가는 빵이여! 뒤

쫓아 오는 굶주림.]”이라는 작품의 마지막 문장은 이러한 식민지 근대의 이중성을 날카롭게 압축하여 제시하고 있다.

한편 반제동맹사건으로 유명한 고정옥(1911~1969)은 「시크(シーク)」(『청량』 제9호, 1930.7.4.(집필: 1930.5. 상순))라는 작품을 통해 식민지 근대를 살아야 했던 근대인의 모습을 정신적 질병(sick)이라는 측면에서 그려내고 있다. 주인공 “카와이(河合)”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 “미찌꼬”와 결혼하여 “리앙그림(Rynglim)이라고 칭해지는 서양인 마을”에 등지를 튼 후 매주 “언덕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등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서구적’ 문화로 치장된 ‘근대적’ 삶을 영유한다. 한때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라는 “건전한” 노래를 불렀던 카와이의 신경은 이러한 속세적인 서구 문화의 향유 속에서 이제는 둔감해져 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헤겔의 해골 위에 물구나무선 마르크스가 개전가를 외쳤다 해도” 이는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며 그 어떤 “세상 속의 의욕세계, 동경세계” 역시 “목살”당할 뿐이다. 대신 그 자리에는 “사소한 일상다반사도, 세계문명을 뒤바꾼 대사건도 차분히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그”, “린네르의 옷을 3일에 한 번은 세탁하고, 규칙적, 위생적, 궤적(軌跡)적 생활을 영위하는 이웃 야마모토(山本) 선생을 그와는 인연이 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 식민지 지식인인 그가 들어섰다. 이렇듯 1930년대 조선에 불어 닥친 경제난·취업난은 한때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걱정하던 수많은 조선인 청년들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어 버렸는데, 이러한 카와이 같은 지식인들의 정신적 질병을 고정옥은 꿰뚫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경성제대 조선인 학생 중에서는 경제난·취업난으로 인해 고등문관 시험에 패스하여 도지사 자리를 하고 싶어 하는 축들도 있었다. 특히 식민 관료 형성을 목표로 했던 일제의 정책으로 인해 조선인 학생들에 대한 일제의 파격적인 특별대우는 경성제대

조선인 학생들에게 그들이 식민지 사회에서 억압받는 조선의 민중들과 같은 조선인이면서도 조선인이 아닌 특별집단이라는 왜곡된 정체성을 파생시켰다.²³⁾ 하지만 “1920~1930년대의 신문학은 한편으로는 식민지 부르주아와 프티부르주아의 의식을 반영하고 그들의 공적·사적 생활을 그려”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사상에 입각하여 식민지 민중계급의 지적·정치적 대변자 역할을 자임했던 지식인 문학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²⁴⁾라는 천정환의 지적은 타당해 보인다. 경성제대 조선인 학생 중에는 상기한 바와 같이 ‘입신(立身)’을 택한 학생들도 있었지만 『청량』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제국의 언어로 식민지 조선의 비참한 상황을 고발하고 있는 학생도 있었기 때문이다.

Ⅲ. 식민지 근대인의 삶과 풍속

1. 근대 문화의 구현 공간으로서의 카페

식민지 조선에 카페가 생긴 시초는 일본 오사카에서 크게 번창하던 아까다마(赤玉)라는 카페가 1년 뒤 당시의 본정 이정목(本町二丁目)(지금의 충무로 2가)에 경성지점을 내면서부터였다. 이 카페가 잘 되자 일본 사람이 북촌에 눈독을 들여 서울 종로 2가 우미관(優美館) 옆에다 ‘낙원(樂園)’이라는 큰 카페를 냈는데 이 ‘낙원’이 종로 쪽에 생긴 카페의 “시조”이다. 기생과 다른 신식 미녀들이 술시중을 드는 카페는 순식간에 인기를 끌었고 값싼 돈으로 놀 수 있었기에 젊은이들은 이리로 몰려들었다. 그리하여 이 새로

23) 정선이, 『경성제국대학 연구』, 문음사, 2002, 180면.

24) 천정환, 『근대의 책 읽기』, 푸른역사, 2003, 323~324면.

운 유흥업소는 요리집과 기생을 누르고 날로 번창해 갔다.²⁵⁾

상기한 바와 같이 조선인 경성제대생 역시 카페라는 근대적 놀이 공간을 특히 선호하고 향유했다. 카페에 들어서면 여급들이 때를 지어 달려들어 이들 속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기생과는 다른 모던한 여급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인생과 학문을 얘기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²⁶⁾ 조선인 경성제대생들에 비해 일본인 경성제대생들은 ‘방칼라식(ばんカラ式)²⁷⁾의 학생 문화를 향유하였는데 조선인 학생들은 일본인 학생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모방하지는 않았지만 “술 마시고 으스대는 기풍만은 싫지 않아” 때로는 술을 마신 다음 “때를 지어 떠들고 노래를 소리 높이 부르면서 거리를 휩쓸”었다고 한다.²⁸⁾ 『청량』에서는 이러한 조선인 학생 문화의 혼종적 성격이 고스란히 재현 되어 있다.

조선인 경성제대생들의 학생 문화는 ‘카페 여급’을 소재로 다룬 소설들에서 주로 재현되는데 앞서 살펴보았던 조용만의 「여자의 일생」과 홍영표의 「희생」이 대표적이다. 조용만의 「여자의 일생」에서 주인공과 주인공의 친구들, 그리고 여급은 “카페.킹”에서

25) 조용만, 『30년대의 문화예술인들』, 범양사, 1988, 71면.

26) 위의 책, 69면과 이충우, 『경성제국대학』, 175면. 조선인 제대생들은 “인생은 무엇이나, 나는 어떤 목표로 정력을 쏟아야 할 것이냐 하는 쉽고도 어려운 문제”를 카페를 드나들며 해소하였다.(이충우, 같은 책, 173면.)

27) 이 단어는 일본어와 영어의 합성어로서 하이칼라의 반대적 의미로 거칠고 왁살스러운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다. 방칼라식은 일본인 학생들이 본국의 고등학교 문화에서 그대로 들여온 것으로, 자신들을 일반 대중들로부터 지적이나 덕성 면에서 우월하다는 엘리트 의식을 깔고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증명해 보이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방칼라식 행동은 옷이나 모자를 찢기(폐의파모(敝衣破帽)), 기숙사에서 신입생에게 난폭한 환영식을 벌이기(스툼), 술을 퍼마시고 노래를 소리쳐 부르기, 머리를 길게 하고 찢어진 망토를 걸친 채 대로를 활보하기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었다.(정선이, 『경성제국대학 연구』, 130~131면 참고.)

28) 이충우, 『경성제국대학』, 77면.

“젊은이의 순진한 놀이” 즉 “동창(ドンチヤン)놀이(떠들고 술 마시고 노는 놀이, 인용자)”를 벌인다. 그리고 그들은 “데칸쇼”²⁹⁾ 노래를 부르는데 이중우에 의하면 이 노래는 실제로 경성제대생들이 부른 노래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노래였다고 한다. 또 주인공은 여급에게 노래를 불러달라고 조르기도 하는데 여급이 불러준 슬픈 노래에 감동하여 그녀의 삶에 연민을 느끼기도 한다.

데칸쇼, 데칸쇼를

반세를 사는 이것은 이것은, 앞으로의 반세여……

<…> 의기와 감격으로 불타는 우리들의 놀이는 120분이라는 짧은
않은 시간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게 했다. <…>

「너는, 뭐라고 하지」 / 「아-까-꼬」 <…>

「응, 아끼꼬, 알았어. 그럼 아끼짱, 한 곡 뽑아주시겠습니까」 <…>

나는, 부평초, 흘러 흘러서. / 지금은, 경성의, 웨이트레스.

고향에는, 아버지와 여동생, 두 사람 / 쓸쓸하게 살며 눈물로 지낸다.

나는, 부평초, 뿌리 내리지 못한 부평초 / 고향이 그리워, 아버가 그리워.

29) 데칸쇼는 데칸쇼부시(デカンショ節)를 말하는 것으로 데카르트·칸트·쇼펜하우어의 줄임말이다. 메이지 말기에서 다이쇼 초기에 걸쳐 구제 고등학교 학생(지금의 학제로 한다면 대체로 고등학교 3학년과 대학 1, 2학년에 해당)들 사이에 널리 애창되었던 노래로 전문은 다음과 같다.

デカンショー、デカンショーで 半年暮す (ヨイヨイ) /

데칸쇼, 데칸쇼 하며 반년 보내고 (요이 요이)

あとの半年は寝て暮す (ア-ヨイヨイ) /

나머지 반년은 잠자며 보낸다 (아-요이 요이)

(가라타니 코오진 외, 송태욱 역, 『근대 일본의 비평 1868-1989』, 소명출판, 2002, 239면 각주 33번 재인용.)

한편 이중우는 이 노래의 가사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데칸쇼, 데칸쇼, 한반년 지내세, 그 다음 반년은 누워서 지내세!』” 결국 이 노래는 “대철학자를 운위하면서 덩굴덩굴 세월을 보낸들 어떠하리 하는 식의, 말하자면 대인 기풍연(大人 氣風然)하는 노래였다.”(이중우, 위의 책, 78면.)

원망하는 듯한, 호소하는 듯한, 우는 듯한 애련한 멜로디는 깊은 여운을 남기고 울려 퍼졌다. 그리고 환락의 향구에 술이 취해 비틀대는 나의 영혼은, 말할 수 없이 슬픔에 그 밑바닥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느끼고, <...> 나의 눈에는 어느 사이엔가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조용만, 「여자의 일생」, 112~115면.)

「희생」의 경성제대생들은 “자랑스러운 예과생활 제1보의 기념제”가 끝났음을 축하하기 위해 ‘브라질 카페’에 모여 축배를 든다. 거기서 그들은 그동안 그들의 안식처가 되어 준 ‘브라질 카페’와 여급 ‘하루꼬 짱’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청량리 예과의 콘페키歌”³⁰⁾를 부른다.

한편 카페는 당시 ‘자유연애’를 즐기던 모던 걸·모던 보이들의 중요한 데이트 코스이기도 했다. 카페는 “커피를 마시면서 빛나는 장래를 이야기”³¹⁾하며 그들의 사랑을 키워나가는 더할 나위없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또 “샐러리맨”들에게는 “기쁜 점심시간”을 더욱 완벽히 충족시켜주는 문화 공간으로서 기능하였으며³²⁾ 때로는

30) 이 노래는 경성제대의 교가를 가리키는 것 같다. ‘콘페키歌’ 즉 ‘감벽가(紺碧歌)’의 ‘감벽’은 경성제대 교가 1절 1행의 ‘푸른 하늘’을 뜻하는 한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충우에 의하면 일본에 있는 경성제국대학 동창회가 대학창립 50주년 기념지로 내놓은 「紺碧遙かに」(푸른하늘 저멀리)는 예과교가의 첫 구절을 따서 붙인 것이라고 한다. 교가는 총 3절로 이충우의 책에 전문이 실려 있다. 1절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푸른하늘 저멀리/학이 춤추는 고려의 벌/밝은 빛은 널리 퍼져/서울의 동녘/천년의 노송 그늘에/모인 우리들/가슴속에 불타는/진홍의 열혈/넘치는 기개만이/고귀한 보배.(이충우, 위의 책, 72~73면 및 83면 참고)

31) 조용만, 「신경질시대(神經質時代)」, 『청량』 제5호, 1928.4.10(집필: 1928. 1. 18.), 157면.

32) “두 사람은 그 다음에 있는 카페에 들어갔다. <...> 이것은 정오에 있어 서만 우리들 하루 생활의 정점(頂點)이다. 라이스카레와, 소다수 한 잔, 그것은 지친 몸을 선명하고 강렬한 부드러움으로 돌려주는 것이다.”(이호근, 「불안이 없어진다」, 『청량』 제9호, 1930.7.4, 23면, 大村益夫布袋敏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는 공간이었다.³³⁾

2. 자유연애로 배태된 연애의 풍경, 연애의 코드

조선인 경성제대생들 또한 연애의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남녀 사이의 새로운 관계인 이 자유연애는 많은 조선인 학생들의 공명을 이끌어냈다. 조혼의 풍습으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 그들이었으므로 1920년대 초에 불어 닥친 자유연애의 풍조는 그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고 이로써 그들 또한 다양한 연애의 포즈를 취하였던 것이다. 여학교 학생과 연애를 하는 경성제대생 및 “카페 여급과의 사랑으로 물의를 빚는” 경성제대생, 고향에서 부모를 모시고 있는 부인을 상대로 이혼을 고민하는 경성제대생 및 카페여급과의 사랑을 죽음으로까지 승화(情死)시킨 경성제대생 등,³⁴⁾ ‘연애병환자’들의 연애 풍경은 다종다양했다. 이 외에도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 연애편지로 매개된 연애의 진진 혹은 좌절, 진진의 마지막 단계로서의 연애결혼 및 ‘내선 연애’ 등 다채로운 연애의 풍경들이 『청량』에 화려하게 펼쳐져 있다.

우선 ‘죽음’을 소재로 연인과의 사랑을 더욱 완성시키는 작품으로는 이재학(1904~1973)의 「눈물(淚)」(『청량』 제1호, 1925.5.18.(집필: 1925.1.10.))과 노성석의 「명문출신(名門の出)」(『청량』 제17호, 1934.3.9.(집필: 1934.1.14.밤))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1920년대의 슬한 자살과 정사는 ‘연애’의 대중적 기호였는데³⁵⁾ 「눈물」은 ‘정사’

博 編, 『近代朝鮮文學日本語作品集(1901~1938)』 創作篇 2, 439면.)

33) 이호근의 「불안이 없어진다」에서 셸러리맨 ‘K군’은 회사에서 “「xx기(器)」가 3대”가 없어진 책임을 져 월급 “18”원을 “차압” 당한다. 이에 대한 울분을 토하기 위해 퇴근 후 그가 가는 곳은 ‘카페’이다.(이호근, 위의 글, 25~27면, 大村益夫布袋敏博 編, 위의 책, 441~443면.)

34) 이충우, 『경성제국대학』, 173~174면.

35) 권보드래, 「연애의 죽음과 생」, 『연애의 시대』, 191면.

를 둘러싼 근대인들의 연애 풍경을 담고 있다. 「눈물」의 주인공은 “거리의 여자” “S꼬”와 “대학을 나온 수재” “K상”. ‘S’꼬는 “번잡한 길거리를 방황하고, 그럴싸해 보이는 신사에게 추파를 보내지 않으면, 한 움큼의 찬밥도 얻을 수 없”는 여성이며 ‘K상’은 “실업계의 총애아”이자 “근대적인 재기”를 지닌 자이다. ‘K상’은 그의 친구 ‘H’와 함께 그녀가 사랑을 위해 목숨을 버릴 것인가를 두고 내기를 벌이는데 결과는 ‘정사 실패’에 승부를 건 ‘H’의 승리였다. 애인과 함께 목숨을 버리기로 결심한 그녀였지만 남자가 먼저 강물에 뛰어내리고 그녀도 “죽으려고 생각하는 순간!” 강이 “갑자기 무섭게 변해져”있는 것처럼 느껴져 “무아지경으로 집에 돌아왔던 것”이다. 이후 ‘K상’은 이 모든 것이 ‘연극’이었음을 밝히고 그녀의 배신을 빈정댄다. 그녀는 애인과 함께 따라죽지 못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끝없는 눈물을 흘리는데 이렇게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그녀에게서 K상은 도리어 “승고”와 사랑의 가치를 깨닫는다. “우는 것은 모두 성자”로 여겨진 탓이다. 즉 “사랑은 창조”이기에 그는 앞으로 S꼬를 믿을 것임을 ‘H’에게 천명하며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명문출신」의 경우에도 ‘자살/자살미수’로 인한 오인은 양반 집 자손이자 “은행원”인 모던 보이 “최”와 “모 백화점 점원”인 모던 걸 “유(柳)”와의 사랑을 더욱 단단히 결속시켜주는 기제로 작동된다. “최수구파의 한 사람”인 최의 아버지는 소위 ‘데파트 갈’인 ‘유’를 “매소부 같은 여자”로 치부하여 그녀와 결혼하려는 아들에게 반대한다. 그리하여 ‘유’에게 ‘최’가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는 거짓 정보를 알렸던 것이다. ‘유’는 자신의 “유일하고 또 존귀한 보물”까지 ‘최’에게 바칠 만큼 그를 사랑했던 탓에 눈물과 함께 밤을 밝히다 “수면불능”에 빠지게 되고 이후 수면제 다량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음독자살”로까지 오인되어 신문에 보도된다. 신문을 본 ‘최’는 ‘유’에게로 달려와 모든 것을 해명하는데 이 일을 계기

로 ‘최’는 결국 자유결혼에 성공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재학의 「거리의 시인(街路의 詩人)」(『청량』 제2호, 1926.3.16.(집필: 1926.2.9.))과 조용만의 「신경질시대」 및 「여자의 일생」, 이호근의 「불안이 없어진다」, 노성석의 「물거품(うたかた)」(『청량』 제16호, 1933.11.8.(집필: 1933.8.18.))에서는 연인들의 사랑의 풍경 및 데이트 코스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자신이 지은 시가 문예잡지의 현상에 당선되자 이를 “애인 S”에게 보여 주며 “뜨겁게 키스”를 하는 “R상”의 모습(「거리의 시인」)도 있고, 연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교외로 산보를 나가는 모습도(「신경질시대」) 있다. 또 “우에노로, 아사쿠사로, 교외로, 들로, 산으로, 즐거운 로망스를 읊”으며 데이트를 즐기는 “Y와 M”도 있고(「물거품」), “달 밝은 밤, 금빛 물결이 흐르는 한강”에서 노래를 부르는 젊은 처녀와 젊은이 및 “노송이 우거진 숲에 복숭아 색의 파라솔과 갈색의 보헤미안넥타이를 휘날리면서”(「여자의 일생」) 걷는 젊은 남녀도 있다. 또 모던 보이와 모던 걸들은 당시 경성 시대가 제공하는 문화시설을 통해 근대의 맛에 취하기도³⁶⁾ 하였는데 이호근은 「불안이 없어진다」에서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그라운드”를 설정함으로써 이를 전면에서 보여주고 있다.

일요일 아침 10시 쯤, 나는 그녀와 나란히 그라운드에 들어갔다. 문밖의 택시, 깃발의 펄럭임, 인파의 시끌벅적함에 비해 장내에 들어서니 편안하고 느긋하게 호흡할 수가 있었다.

관중은 반이나 정돈되어 있었다. 아침 해에 빛나는 넓은 그라운드의 한가운데에 선원 같은 흰 옷의 임원(役員)이 움직이고 있었다.

직선으로 달리고 있는 몇 줄이나 되는 흰 선이 스포츠맨의 건강한 육체의 약동을 기다리고 있었다. <…>

두 사람은 어느 좌석에 앉았다.

36) 김동노, 「식민지시기 일상생활의 근대성과 식민지성」,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일제의 식민지배와 일상생활』, 29면.

그러자 한 번 피스틀이 맑은 하늘에 울리고 곧, 음악이 조용히 연주되기 시작하였고, 그림과 동시에 건너편 한 구석에서 선수 한 명이 진군해 나오더니 쪽 늘어서서 직립부동의 자세를 취했다.

그녀는 벌써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환희의 색을 띄고 있었다.

「아름답네, 많이 늘어선 인형처럼, 가슴 쪽의 No.만이 다르다—소위 집단미 아니겠어요?」 <...>

그리고 러닝이 시작되었다.

인간이 아닌 기차의 피스톤처럼 기계적인 강박력을 가지고, 그 다리와 팔의 근육을 움직이는 선수의 모양에, 그녀는 찬미의 마음으로 몸 둘 바를 모르는 것 같았다.³⁷⁾

(이호근의 「불안이 없어진다」, 21~22면, 大村益夫·布袋敏博 編, 앞의 책, 437~438면.)

신여성과 신남성, 모던 보이와 모던 걸의 연애가 애초에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학교”, “회합”, “유학”, “음악회”, “레스토랑”, “전차” 등, 근대적 사회 공간과 대중교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근대 문명 및 학문을 습득하기 위해 선택되었던 ‘유학’은 본국을 벗어나 타국에 있다는 해방감만으로도 윤리·도덕적 의무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가 있었기에 자유로운 연애가 싹 틀 가능성이 컸다. 처가의 덕으로 유학을 하게 된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는데 노성석의 「물거품」이 이를 잘 드러낸다. 미술에 재능이 있던 ‘Y’는 “대실업가 B씨”의 딸과 혼인함으로써 동경 유학을 하게 되지만, 자신의 아내보다도 동경유학에 끌려 결혼한 탓에 동경의 어느 레스토랑 “미술가 그룹의 회합”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는” “미모”의 여성 “M”을 알게 된 후 그녀를 그리워하게

37) 신명직에 의하면 경성 모던걸들도 경성 운동장에 무슨 운동경기가 있다고 하면 공짜표를 얻어내 반드시 보러갔다고 한다. ‘스포-쓰’는 이미 하나의 모던한 문화로 인식되어 유행했던 것이다. 또한 전근대사회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원시성의 육체가 주는 충격을 그들은 마음껏 향유하고 있었음이 인용문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신명직, 『모던소년, 경성을 거닐다』, 현실문화연구, 2004(2003), 157~161면.)

된다.³⁸⁾

이러한 공공영역의 네트워크 속에서 연애의 가능성을 키운 그들은 ‘편지’를 주고받음으로써 더욱 사랑을 발전시켰다. 「물거품」에서 ‘M’은 “음악에는 문외한”인 미술학도 ‘Y’에게 음악 작품집을 빌려달라는 수작으로 “연애편지”를 시작한다. 또 상대방의 “애원의 글”에 대한 답변을 “단지 새하얀 편지지” 한 장을 “4번 접어” 보냄으로써 “내 마음은 이렇게 결백해요, 당신의 요건은 만사 O.K.” 혹은 “당신! 백지로 돌아가 단념해 주세요…….”(「명문출신」)라는 상반된 해석을 유도하게끔 만드는 것도 연애편지만의 기능이였다. 이로써 서로는 서로의 “진의가 어느 쪽에 있는 가를 알기 위해서, 2, 3회의 편지 왕래”(「명문출신」)를 하게 되고 결국 이들은 “어떠한 칼로도 끊어낼 수 없”(「물거품」)는 사이가 된다. “붉은 봉투, 푸른 봉투, 담홍의 레터 페이지” 혹은 “백지의 줄도 그어져 있지 않은 레터 페이지”에 “불타는 듯한 열정을” “적나라하게 호소”(「물거품」)함으로써 청년 남녀는 그들의 사랑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³⁹⁾

38) 상기한 바와 같이 ‘유학’, ‘회합’, ‘레스토랑’ 외에 ‘음악회’, ‘전차’ 등에서도 남녀가 자연스럽게 만나 자유연애를 싹 틔웠는데 『청량』에 수록된 작품 중에는 「물거품」과 「명문 출신」에서 이것이 잘 드러나 있다. ‘음악회’의 경우 젊은 남녀는 청중의 무리 속에서 은밀히 서로의 시선을 주고받으면서 연애의 가능성을 키워나갔는데 「물거품」과 같이 자기 연인이 다니는 학교 음악대회에 초대받아 그녀의 흰 물고기 같은 손이 건반을 치는 것을 열중하여 보고 난 경우에는 더욱 그녀에 대한 찬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노성석의 「명문 출신」의 경우에는 지갑을 잃고 전차에 오른 모던보이 ‘최’의 차표 값을 전차 안의 ‘유’가 대신 지불해줌으로써 이들의 사랑의 계기가 만들어진다.

39) 한편 이러한 연애편지가 때로는 결별을 선언하는 “사랑의 청산서”로 기능하여 상대를 좌절시키기도 했다. “연애진전 이상 있음”과 같은 “청천벽력”의 편지를 받은 상대방은 이로써 자살을 하기도 하고, 「물거품」의 ‘M’처럼 “○○○○운동의 리더가 되어” “풍운을 일으킨 스타트”가 되기도 했다.

IV. 결론

지금까지 『청량』을 중심으로 조선인 학생들의 이중어 소설을 연구해 보았다. 『청량』에 수록된 소설 중 조선인 학생이 쓴 총 17편의 이중어 소설들에서 조선인 경성제대생들은 조선의 내부 식민지인으로 고통 받는 하층민 여성(카페 여급과 구여성)들을 대변하기도 하고, 조선의 가난한 소작인을 통해 사실적인 ‘조선의 얼굴’을 그려내기도 했다. 또 당시 일본을 통해 이식해 들어온 근대를 경성이라는 도시 공간에서 마음껏 주유하던 근대인의 풍속도 드러내고, 이러한 근대가 식민지라는 역사적 조건으로 인해 왜곡되고 변주됨으로써 파생된 식민지 근대의 이중성도 그려내었다. 이로써 조선인 학생들의 이중어 소설이 과연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대체적으로 그들은 ‘동화’와 ‘저항’이라는 경성제대 내의 이중적인 모순구조 속에서 그들 조상에 대한 책임 의식을 지니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였던 것이다. 물론 그것이 1930년대에 불어 닥친 경제난·취업난으로 인해 고등문관 시험을 통한 고등관 진출이라는 입신출세의 길로 꺾이기도 했지만, 『청량』을 통해 살펴본 경성제대 내 조선인 학생들의 경우 제국의 언어인 일본어로 조선의 현실을 그림으로써 일본인 교수와 일본인 학생들에게 조선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

한편 『청량』에 수록된 경성제대 조선인 학생들의 이중어 소설은 이중어 소설 연구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무엇보다도 ‘이중어 소설(더 넓게는 글쓰기)’이란 일제말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며 일본어로 조선의 현실을 재현하기 위해 창작되어졌다는 사실이다. 또 ‘이중어 소설’을 ‘협력’/‘저항’이라는 이분법적 잣대만으로 설명할 수 없음도 알 수 있다. 즉 조선인 학생들은 경성제국대학교에서 일본인 교수에게 가르침을 받고, 일본인 학생들과 나란히 공부하였으며, 제국의 언어인 일본어로 소설을 쓰고 발표하였

다. “제국적 질서의 전유(appropriation)란 식민지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지” 이를 두고 협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⁴⁰⁾ 하지만 “텍스트에 대한 독서 행위는 그 자체로 왜곡에 대한 수정이고 세계관의 변화를 의미하는 저항적 의의”⁴¹⁾가 있다. 그러므로 경성제대 조선인 학생들이 조선의 현실을 비껴 넣은 이중어 소설이 일본 제국의 본국인들에게 식민지 정책의 모순을 고발하는 도구로 기능하였다면 이를 가리켜 저항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량』에 수록된 조선인 경성제대생들의 이중어 소설에도 한계는 있다. 우선 작품의 저자들은 조선 사회의 수재 중에서도 수재로 불리어졌던 엘리트들이었기에 조선의 하층민들 내부에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100% ‘대변’/‘재현’이란 불가능했다. 게다가 조선의 민중들은 일본어로 창작되어진 그들의 작품을 절대 읽을 수 없었을 것이므로 결국 이는 지식인의 담론 속에만 한정되는 한계를 노정하는 것이었다. 또 경성제대 조선인 학생들이란 조선의 하층민과 같은 조선인임과 동시에 젠더와 계급으로 구축된 내부 식민자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식민지 속의 내부 식민지로 고통 받는 조선의 여성들을 그리면서도 때로는 그들이 내부 식민자가 되어 제국주의자의 시선으로 여성들을 바라보기도 했다. 이 같이 혼종적이고 분열된 양가적 시선은 작품 곳곳의 지식인 화자의 시선에서 발견된다.⁴²⁾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40) 윤대석, 『식민지 국민문학론』, 역락, 2006, 187면.

41) 이승렬, 「탈식민 실천으로서의 제3세계 문학—『모든 것은 무너져내린다』의 저항의 문제성과 성의 정치학—», 고부웅 엮, 『탈식민주의—이론과 쟁점—』, 문학과 지성사, 2005, 310면.

42) 가령 조용만의 「여자의 일생」과 김비토(김중무)의 「백의의 마돈나」, 한상호의 「봄을 기다린다(春を待つ)」(『청량』 제8호, 1930.3.13.), 홍영표의 「희생」 등에서 드러나는 지식인 화자의 시선을 보라.

끝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며 산출된 몇 가지 다른 연구거리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내선연애 및 내선결혼’의 문제인데 한상호의 「봄을 기다린다」에서는 신여성이자 이혼녀인 ‘요시꼬’와 상해에서 대학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조선인 엘리트 ‘임건일’의 내선연애 및 동거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 「봄을 기다린다」가 발표되던 당시는 총독부가 내선연애 및 결혼을 강요하던 시기가 아니었으므로 이는 내선연애 및 결혼이 ‘국책 결혼’으로 장려되던 시기의 문제와는 층위를 달리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게다가 조선의 엘리트인 한상호가 “조선인의 피에 대한 관념에 충격을 주는”⁴³⁾ 이러한 설정을 통해 내선연애 및 결혼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그가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 작업은 중요하다. 이는 중일전쟁 이전에 조선인이 이중어로 쓴 여타의 내선연애 소설들과의 비교 속에서 좀 더 천착해 봐야할 문제로 사료된다.

『청량』에 발표된 조선인의 이중어 소설 17편 중 과반수가 죽음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정사:1편, 자살:4편, 자살미수:3편, 죽음:1편) 역시 흥미로운 연구거리로 본다. 이는 당대의 문학·문화적 풍토 및 1920년대 소설 기법과의 연관성, 그리고 식민지 근대라는 시대적 배경 등과 관련하여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 작품에 영어를 비롯한 각국의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점 또한 조선인 경성제대생들의 의식구조를 파악해볼 수 있는 중요한 단초로 여겨지며, 『청량』에 발표한 일본인 경성제대생들의 소설 또한 반드시 연구해봐야 할 것이다. 이상 본고에서 제기한 문제들은 다음의 연구과제로 미루며 본고를 마치겠다.

43) 이상경, 「일제 말기 소설에 나타난 ‘내선결혼’의 층위—이광수와 한설야의 작품을 중심으로—, 김재용 외 저,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 3, 도서출판 역락, 2003, 119면.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경성제국대학예과학우회 편, 『청량(淸涼)』, 경성제국대학예과학우회, 19--.
- 경성제국대학예과문우회 편, 『문우(文友)』 제5호, 경성대학예과문우회, 1927. 11. 10.
- 호테이 토시히로(布袋敏博), 「일제말기 일본어 소설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6.
- 大村益夫·布袋敏博 編, 『近代朝鮮文學日本語作品集(1901~1938)』 創作篇 1~5, 東京 : 綠蔭書房, 2004.

2. 논문

- 김용찬, 「고정옥의 생애와 월북 이전의 저술 활동」, 『한민족어문학』 제46집, 한민족어문학회, 2005. 6, 145~176면.
- 김운재, 「조용만 : 친일 인사에서 문단언론계의 원로로」, 반민족문제연구소, 『청산하지 못한 역사』 3, 청년사, 1994, 100~111면.
- 박광현, 「경성제국대학의 문예사적 연구를 위한 시론」, 『한국문학연구』 제21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9. 3, 343~367면.
- _____, 「경성제대 ‘조선어학조선문학’ 강좌 연구—다카하시 토오루(高橋亨)를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제41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3. 8, 343~375면.
- _____, 「경성제대와 『新興』」, 『한국문학연구』 제26권,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3. 12, 247~274면.
- _____, 「식민지 조선에 대한 ‘국문학’의 인식과 다카기 이치노스케(高木市之助)」, 『일본학보』 제59집, 한국일본학회, 2004. 6, 239~258면.

- _____, 「경성제국대학 안의 ‘동양사학’-학문제도-문화사적 측면에
서-», 『한국사상과 문화』 제31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5,
283~313면.
- 백영서, 「상상 속의 차이성, 구조 속의 동일성-京城帝大와 臺北帝大
의 비교-», 『한국학연구』 제14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
소, 2005, 171~185면.
- 성운자, 「최재서의 친일문학론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0.
- 손윤권, 「70년대 소설에 나타난 식민의 양상」, 『강원인문논총』 제17
집, 2007. 6, 29~60면.
- 신동훈, 「고정옥의 삶과 학문세계(상)」, 『민족문학사연구』 제7호, 민족
문학사연구소, 1995. 6, 270~316면.
- _____, 「고정옥의 삶과 학문세계(하)」, 『민족문학사연구』 제8호, 민족
문학사연구소, 1995. 12, 221~241면.
- 안미영, 「1930년대 소설에 나타난 여급(女給) 고찰-이상의 여성관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0, 289~311면.
- 오문석, 「식민지 시대 교지(校誌) 연구 (1)」, 『상허학보』 제8집, 상허학
회, 2002. 2, 13~27면.
- 유진오, 「작품해설」, 『한국단편문학전집 2 유진오단편집』, 정음사,
1978.
- 이광일, 「이재학 : 현대사 정치파동의 감초」, 반민족문제연구소, 『청산
하지 못한 역사』 2, 청년사, 1994, 145~160면.
- 이상경, 「일제 말기 소설에 나타난 ‘내선결혼’의 층위-이광수와 한설
야의 작품을 중심으로-」, 김재용 외 저,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 3, 도서출판 역락, 2003, 117~152면.
- 이혜령, 「식민주의의 내면화와 내부 식민지-1920~30년대 소설의 섹
슈얼리티, 젠더, 계급-」, 『상허학보』 제8집, 상허학회, 2002.
2, 269~293면.

3. 단행본

- 고부응 역, 『탈식민주의—이론과 쟁점—』, 문학과 지성사, 2005.
-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2003.
- 신명직, 『모던소년, 경성을 거닐다』, 현실문화연구, 2004.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일제의 식민지배와 일상생활』, 해안, 2004.
- 유중호, 『나의 해방 전후』, 민음사, 2005(2004).
- 유진우, 『양호기(養虎記)』, 고려대학교출판부, 1977.
- _____, 『젊은 날의 자화상』, 박영사, 1983(1976), 9~91면.
- 윤대석, 『식민지 국민문학론』, 역락, 2006.
- 윤택립, 『인류학자의 과거 여행』, 역사비평사, 2003, 100면.
- 윤해동·천정환허 수황병주·이용기·윤대석 역, 『근대를 다시 읽는다』 1·2, 역사비평사, 2006.
- 이상욱, 『이효석의 삶과 문학』, 집문당, 2004, 28~41면·353~364면.
- 이응선 편, 『동은 이재학 회고록』, 이화문화사, 2004.
- 이충우, 『경성제국대학』, 다락원, 1980.
- 정선이, 『경성제국대학 연구』, 문음사, 2002.
- 조용만, 『30년대의 문화예술인들』, 범양사, 1988.
- _____, 『경성야화』, 도서출판 창, 1992.
- 천정환, 『근대의 책 읽기』, 푸른역사, 2003.
- 현진건, 『운수 좋은 날』, 문학과 지성사, 2008.
- 가라타니 코오진 외, 송태욱 역, 『근대 일본의 비평 1868~1989』, 소명출판, 2002, 237~241면.
- 고모리 요이치, 송태욱 역, 『포스트콜로니얼』, 삼인, 2002.
- 다카사키 소지, 이규수 역,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들』, 역사비평사, 2006.
- 빌 애쉬크로프트 외, 이석호 역, 『포스트 콜로니얼 문학이론』, 민음사, 1996.
-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윤수중 역, 『제국』, 이학사, 2005, 164~204면.
- 프란츠 파농, 이석호 역, 『검은 피부, 하얀 가면』, 인간사랑, 2003.
- 호미 바바,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05.

A study on the Bilingual novels in *Cheong Ryang*

Shin, Mi-Sam

The *Cheong Ryang* is the literary magazine published by Circle of Literary Friends in Preparatory Department of Kyeongseong Imperial University. Both Chosun students and Japanese students wrote their works, and published them in this magazine. Among them, the bilingual novels which Chosun students wrote are 17 novels. The Chosun students spoke for the people of underclass who was people of internal colony in Chosun, and also pictured gloomy Chosun through them. And also, they pictured manners of modern men who made a trip to “the modern” introduced from Japan, and they accused the duplicity of the colonized modern expressed distortedly under the condition of a colony by Japan. The Chosun students in Kyeongseong Imperial University represented the realities of Chosun through bilingual novels in which the language of home country borrowed in the double paradoxical structure in Kyeongseong Imperial University, namely 'assimilation' and 'resistance', and they were making their own identity under the situation.

Key words : Kyeongseong Imperial University, Chosun student, *Cheong Ryang*, Bilingual novel, Underclass, People of internal colony, modern, Colonized modern.

신미삼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주소 : (우)712-749 경북 경산시 대동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전화번호 : (학교) 053-810-2110, 핸드폰 : 011-535-0921
전자우편 : shinmisam1105@hanmail.net

이 논문은	2008년 11월 14일 투고하여
	2008년 12월 2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8년 12월 30일 간행함